

부산지역 워터프런트 공간에 있어서 수변공간의식에 대한 연구 ~해운대와 자갈치를 대상으로~

*콘 마사유키, † 이 명권, *안 창수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대학원

A Study on the Users' Awareness of Waterfront in Busan Area - Focusing on Haeundae & Jagalchi -

*Masayuki Kon · † Myung-kwon Lee, *Chang-Su Ahn

*† Division of Architect & Ocean Space,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Pusan 606-791, Korea

요 약 : 본 연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워터 프론트로서 인지도가 높은 해운대와 자갈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간의 오감을 통한 수변공간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해운대는 이용자의 81.5%(163명)가 「바닷바람을 느낀다」로 응답하였으며 자갈치는 55.8%(111명)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로 응답하였다.…… (중략) …….

핵심용어 : 수변공간의식, 인간의 오감, 해운대, 자갈치, 수변공간의 전체적 만족도

ABSTRACT : Based on a survey for Haeundae and Jagalchi, representative waterfronts in Busan, this study examined the users' awareness of waterfront employing human's five senses. The results show that 81.5 % (163 respondents) of users in Haeundae responded 「They feel sea breeze」 whereas 55.8 % (111 respondents) of users in Jagalchi responded 「They can eat seafood」.

KEY WORDS : users' awareness of waterfront, human's five senses. haeundae, jagalchi, overall satisfaction about the waterfronts.

1. 서 론

근년들어 워터프런트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대두되어 워터프런트 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전에는 주로 물류공간·생산공간중심에서 오늘날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의 공간중심으로 워터프런트가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워터프런트 개발 계획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한국내 워터프런트 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부산의 워터프런트를 대상으로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와 자갈치를 대상으로 내방자의 수변공간의식과 그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인간의 오감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워터프런트 개발지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수변공간 의식과 오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의 해운대와 자갈치 일대를 대상으로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조사대상지의 개요 및 조사 방법

3.1 설문조사대상지의 개요

조사 대상 지역인 해운대와 자갈치는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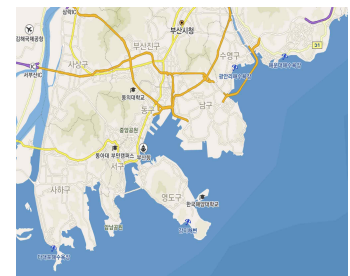


Fig. 1 Site map

해운대구와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Fig. 1참조)

3.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관광지로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2곳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8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20일간, 조사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였다.

대상자는 16세 이상 남녀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상지당 주중 100부 주말 100부씩 계 200부를 개별 면접방법으로 채취하였다.

4.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4.1 속성

양케이트 조사는 남녀비율 50±5%를 목표로 하여 개별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연령은 해운대와 자갈치 모두 20대가 많았으며, 특히 자갈치는 51.8%를 차지하고 있다.

내방자의 직업으로는 학생(해운대 55명 27.5%, 자갈치 86명 43.2%)이 두 지역 모두에서 제일 많았다.

거주지는 두 지역 모두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시내거주자의 방문이 가장 많았다. (해운대 97명 48.5%, 자갈치 120명 60.3%) 그 중에서도 해운대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방문자가 28명으로 14%를 차지하였다. 또, 자갈치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도구 거주자가 38명 19.1%로 나타났다.

방문 인원수는 해운대가 3명~5명이 95명, 47.5%, 자갈치는 2명이 85명, 42.7%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방문 구성은 두 지역 모두 친구와 같이 방문한다가 가장 많았다. (해운대 71명 35.5%, 자갈치 68명 34.2%)

방문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문자가 많았으며 (해운대 84명 42%, 자갈치 107명 53.8%), 특징적인 것은 해운대는 택시 이용자 비율 81명 40.5%로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요 시간은 거주지에서 대상지를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해운대는 2시간 이내가 55명 27.5%로 가장 많았다.

체제 시간은 해운대는 3시간 이상 122명 61.0%로 방문시에 장시간 체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갈치는 1시간 이내 88명 44.2%로 방문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운대에 비해 자갈치가 쇼핑 등 목적방문으로 1시간 이내의 체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희망 활동은 해운대는 휴식이 103명 5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기분 전환(83명 41.5%), 경치를 보기(75명 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갈치는 해산물 먹기가 88명 4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휴식(78명 39.2%)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수변공간의식 결과 및 분석

수변공간의식에 대해서는 해운대는 '바닷바람을 느낀다'가 163명 8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다냄새가 난다'가 129명 64.5%, '바다가 보인다' 106명 53.0%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갈치는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가 111명 55.8%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바다가 보인다'가 100명 50.3%, '바닷바람을 느낀다'가 98명 4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변공간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7요인 카테고리(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시설의 존재, 활동)로 분류하고 각각을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까지 5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해운대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통에서부터 만족 쪽이 많았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은 자연 환경(나무, 잔디, 해변)으로 만족이 107명 53.5%, 매우 만족이 19명 9.5%로 나타났다. 자갈치는 전체적으로 보통이 많았으며, 7항목 모두에서 보통이 가장 많아 특징없이 무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수변공간의식과 7요인 카테고리 분석

내방자의 수변공간의식과 인간의 오감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7요인 카테고리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같은 인간의 오감과 시설의 존재 및 활동 항목을 추가해 각 요인과 수변공간의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운대에서는 첫째 시각적인 요인이 27.6%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바다가 보인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번째로 촉각적 요인이 23.0%였으며 촉각요인 중에서는 '바닷바람을 느낀다'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테고리	해운대		자갈치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시각	56	6.80	56	6.80
촉각	56	6.80	111	15.02
후각	106	12.88	81	10.96
미각	17	2.07	100	13.53
청각	6	0.73	18	2.44
시설의 존재	20	2.43	49	6.63
활동	44	5.35	34	4.60
해운대	14	1.70	24	3.25
자갈치	163	19.81	98	13.26
총계	821	100.00	799	100.00

Table.1 Relations of waterside space consciousness and the human five senses(Haeundae and Jagalchi)

5. 결 론

본 연구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와 자갈치를 대상으로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내방자의 수변공간 의식과 그 요인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해운대에서는 후각과 촉각요인 모두 30%를 상회하였으며 자갈치는 미각 요인이 32%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1] 綿引好夫 (1994) 、博報堂生活総合研究所：「[五感]の時代」、株式会社プレジデント社
- [2] 川口宗敏、寺島俊二、昆 雅之 (1997)、「ウォーターフロント開発地における利用者意識の評価構造」、日本沿岸域學會研究討論會公演概要集 No.11
- [3] 川口宗敏、昆 雅之 (1998)、「ウォーターフロント開発地における利用者の水辺空間意識」、日本沿岸域學會研究討論會公演概要集 No.12

* 일반회원, mkplanning@gmail.com 010)9822-3564, sokdown@hanmail.net 016)638-1809 † 교신저자 종신회원, mklee@hhu.ac.kr 051)410-4584